

三位一体로 세계의 작품을...

文明의 이기로 사람은 便하게 살면서도 더욱 便하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公害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限것 欲心을 부리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都市에 살다보면 그날그날 타성에 젖어 삶의 哲學마저 잊어버리게 한다.

어쩌다 조용한 시골에 지내다 보면 바쁘게 살던 습성에 무료함을 느끼게 하고 都市로 돌아오다 느끼게 하는 것은 도시에 가까워 질수록 기차소리 자동차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겹쳐 이상한 굉음이 되어 닥쳐움을 느끼게 한다. 아! 또 저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눈도 따가워 지고 있다. 두려움마저 느끼며 돌아온 도시에 바쁘게 움직이는 군중속에 휩쓸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순화되고 만다. 公害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는 올바른 일을 잊어버리고 그날 그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만 움직이며 더 便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고나 할까?

이에 자기만 자기 가족만이 편하면 그만이란 생각이 팽배하여 지고 어떤 일의 目的마저 잃어 버리게 한다. 이에 맞는 만담 생각이 난다.

便安하기만을 바라는 한 사람이 잠깐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로 그 곳에 가서 보니 비단이불에 누워있고 주위에는 시중을 드는 仙女같은 女子가 시녀(?)같이 보살피며 어디,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하기에 내가 天堂(?)에 왔구나 하며 소원이던 便安을 만끽하며 지내다 보니 차츰차츰 지루하기 시작하여 시중들어주는 이에게 무슨 天堂이 이렇소 심심하여 못견디겠소 하고 불평하며 소일거리를 주시오 하였던니 시녀로 알았던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天堂에 온줄이는 모양인데 당신은 지금 저속에서 온 것이며 이곳에 온 이상에는 절대로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오 하더라나 그러다 아직 이곳에 율時期가 아니니 다시 돌아갔다 오시

오 하여 깨어나서는 일할 수 있는 이세상이 天堂이지요 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더라는 이야기가 기억된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살아나야 가야 할 의무의 자극제를 일깨워주는 말로서 할일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정말로 이 세상이 天堂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85年度는 우리 建築士 에게는 주워진일이 별로 없어 저속같은 시련의 한해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의일은 規格品의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것이 아니라 주문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일로서 계획을 세워서 수주를 할수 있는 일은 더욱 아니다. 또 흔히 새해를 맞아서 세우는 계획은 事業計劃만을 생각게 하며 他意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알게되지만 예산계획 아닌 일에 對한 計劃은 세울수 있다고 본다. 이는 畫家가 돈을 爲한 그림보다 그림을 爲한 그림을 그리고저 함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우리 建築士協會가 성인된 해이며 이의 會員作品展에는 어느해보다도 많은 作品이 출품되었고 수준이 월등히 向上 되었음을 우리 會員은 알고있다. 이는 할일을 찾아 일하는 회원이 많아졌음을 뜻하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일반경쟁공모도 많아져 一般社會에서도 建築物에 對한 認識度가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되며 그집의 基礎보다도 우선 앞서 設計의 중요성을 알이주는데 우리는 더욱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量産의 件制에서 質의 重視件制로 變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된다. 이는 적은 建築物 하나라도 질좋은 건물로 만들고저 애를 쓰게 되었으며 이와같이 인식시켜 졌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건축이 安定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에게 밝은 앞날을 기약함에는 틀림이 없다.

物量의 수출에서 기술집약의 양질의 開發品으로 바뀌어가며 미흡한 기초기술축적

에 아쉬움과 수출고전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미리아에 대한 기술개발에 등한하였던 것을 후회하게 한다. 하지만 또 훗날에는 현시점의 잘못을 후회하게 만들게된다. 다시 후회가 없게 현시점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함을 말한다.

우리도 이와같은 닥쳐 올 난관을 타개하기 爲하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축척하여 가는 해도 86年度를 맞아 서로가 協力하고 노력하여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文化 創達에 몇몇한 一員으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안되는 방향이 아닌 좋은 方向으로 되도록 이끌어 주고 사회는 사회대로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作品이 되도록 三位一体가 되어 같은 목적으로 매진하고 또한 建設機術者는 良質의 공사를 하여 서로가 믿고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면, 이위에서 만들어진 建築物은 世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作品이 될 것이다.

이러한 作品들이 86年會員作品展에 出品되어 大盛況을 이루게하고 더욱 社會에 設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권위있는 作品展으로 승화시켜 세계가 부러워하는 世界의 作品展으로 발공시켜 세계지방에서 作品을 보러오게 만드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曷惜일까?



군살빼기 작전

조상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365일 이란 하나의 수치 단위를 1년이라고 사용하는 시간단위로서 몇천만번을 오늘까지 되풀이 되어 지내오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차례는 그 중에서 불과 칠십여회에 지나칠 정도로 그치는 것에 새삼 너무 짧다는 것을 금년엔 더욱 느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미 마흔한번은 지나가버렸고 이제 남은것은 삼십여회에 불과하나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쓰여질 지가 의문인 것 같다.

이제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 무엇인가 새로이 기대해 본들 과연 몇번의 다짐과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런지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고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다.

86년 병인년의 해에는 무엇인가 기대해 보는것 보다는 조그마한 소망 아닌 노력부터 해보기로 결심 하였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방송 등에 유명, 고명하신 분들의 새해에 기대하는 말씀이 수없이 실려졌고 또한 그것들을 다 읽고 듣다 보니 내에게는 전연 관심밖에 일들인것 같다.

다만 그분들이 나열하신 기대의 내용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뜻한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다.

금년에는 우리 사무실이 좋은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있어 모여진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것 같다.

그동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오다 보니 한번쯤은 뒤를 돌아다 볼 시간적 여유도 있어지고 또한 지난일을 돌이켜 보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을 간추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변신하는 새모습이 없다면 아무런 감동도 생동감도 자아내지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부지런히 새모습을 챙기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짧았던 기간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범하면서 항상 무엇인가 발견해 보려고 발버둥치어보고 있는 것이 비단 건축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전례를 만들고 그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항상 좋은 길잡이는 정상을 정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며 자신없는 길잡이에 의하면 실패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재삼 느껴지므로 우리의 사무실도 더한층 노력하고 또한 축척된 능력은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을 향한 첨단을 걸어 볼 수 있는 첨단산업과는 다르지만 무엇인가 단 앞으로 5년 앞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체를 만들고 축척하여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군살빼기 작전을 시행할 때가 오지않았나 하고 느껴진다.

이 지구촌에 창조해 놓은 것중에 조물주가 가장 걸작품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엔 인간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된다.

나 자신이 그러하듯이 너무 비대해진 몸뚱이가 행동하고 활동하기에 거북스럽듯이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에는 고물이 되지 않았나하고 느껴진다.

비대하여 졌다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 많이 불었다고 할수있고 움직일수 없도록 저능률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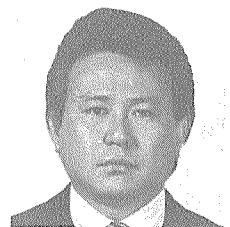
최소의 단위에서 최대의 효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최소단위가 모여 지어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이것을 축척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것은 5년후가 아닌 2000년 이후의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것 같다.

항상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현실을 직감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분야는 운영과 조직

면에서도 그러하듯이 늘상 상반되는 작업을 해왔고 이것이 현실인양 자위해 오며 과거를 잊지않으려 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좀더 실제적이고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말은 직업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것을 정리해 축척한다면 좀더 새로움과 신선함이 넘쳐 흐를것 같다.

군살빼기작전이란 구석구석 찾아내어 어디엔가 축척되어진 새로운 것을 찾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쓸어버리는 태도로 신년에 기대를 해보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의 몸의 군살부터 빼고 다음은 우리의 조직의 군살도 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기대인것 같기도 하다.



김자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간사

좋은 건축물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며...

그리 많지도 않은 인생의 점 중에 또 하나를 찍는다. 하나하나 찍혀진 점들이 어떤 형태를 그 마감에서 이루게 될지 궁금하다. 과연 그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위치에서 흐트러진 채 머무르고만 있는지도 모른다. 유난히도 추운 올해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얼리려는 것처럼 기세등등 하다. 그러나 춥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을 수만도 없음이 우리에게는 당연 과제다. 기다리면 찾아 올 봄을 앉아서 맞으면 그만이지만, 그럴만한 여유없음이 우리를 조급하게한다. 뛰어나가 봄을 찾아다녀야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것 같아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각오를 새롭게 해보지만 얼마나 빨리 봄을 앞당길 수 있을지 내다보여지지 않는다. 제도판을 마주할 시간조차 나누어 가질 수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부딪치며 바쁘지만 했던 지난해도 악몽같은 연말의 결산을 겨우 턱걸이로 넘겨 보냈다. 새로운 다이어리에 새로운 계획을 맞추어 보면서 챗바퀴 속의 다람쥐가 되지않을 공리를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된다.

어쨌건 매사에 매듭이 있다는 것은 편하다고 여겨진다. 좋든 싫든 잡다한 것들을 매듭의 건너편으로 밀쳐버리고 새로운 매듭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해가 지나서 새로워 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 할 때마다 매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증내지않고 꾸준히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아마 하나의 프로젝트를 일생동안 만져야한다면 끝까지 버티어 내기에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 단언해도 우리가 아닐 것이다. 하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대는 물론 선대와 후대에까지 물려가며 그일에 매달렸던 시절이

있었고 그 직업의 결과들로 해서 오늘의 건축문화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함을 알지만 그때와 지금과의 여건은 현재의 위치에 대한 시간상의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라고 해서 무작정 좋기만 했을리는 없겠지만 하나의 일을 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과 집안의 모든 것을 그만을 위해 내어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만으로도 갖추어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요즘처럼 허구한날 부지런을 떨어도 기본적인 조건조차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었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적 유산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그 일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손끝 놀림의 한계를 느낄 수 없게하는 그런 일들이 자질구레한 인간의 공색한 사정과 너저분한 사연들을 배경으로 하고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어렵게 어렵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차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다가 결국은 초읽기에 몰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맞추어 내고 나면 십년감수한 듯이 허탈에 빠지고 그리고는 또 같은 일을 시작해야하는 이런 반복이 처음에서부터 우리의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런 과정에서 남는 결과라야 뻔할 수 밖에 없다.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조건에 두두려 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좀더 신경쓴다면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재주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판에서 건축을 창작한다고 하는 것이나 길이 남을 문화유산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허세스럽고 안스러운 허우적거림에 머무르고 마는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어른들의 표현을 빌면 요즘은 당신들의 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데도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절대적인 최선은 없고 상대적

인 최선만 있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좋아진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치는 우리의 욕심이 제 분수를 모르기 때문인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망의 정도가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 같기도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무리 보쳐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계순에 켜어진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상태로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일 이다. 그것이 스스로의 게으름이나 역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내적인 탓보다 주위 여건의 외적인 탓으로 쉽게 돌려버릴 수 있게 하는 일자체의 여건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섭섭하게 느껴질 뿐이다.

도끼자루가 썩는지도 모르는 신선놀음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경우가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포기해야 겠지만 “신선놀음”에 대한 미련이 올해에도 문득 문득 고개를 들것같아 정초를 며칠 쉼 틈에 깨끗해진 손끝으로 이런 글을 써 본다.

아무쪼록 '86년은 회원모두가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을 다해 作品에 전념하여 좋은 건축물이 쏟아져 나오길 바란다.



김인철 종합건축사사무소 엄·이건축

건축의 질적향상을 기대하며...

1986년 새해가 밝아온다.

조금은 지루하고 암울하였던 지난해의 긴 터널을 뚫고, 동그랗고 환하게 터널의 끝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신구의 교차점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선수의 마음가짐이 되어 새 출발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 해에는 더 열심히 뛰어 보아야지...

새해에는 으레 좋은 변화를 기대해 보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인지라 정초에는 지난해 못다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꼭 실천해 보리라 마음을 가다듬어 보지만 어느새 며칠 일에 쫓기다보면 나태해져 언제 그랬느냐는 듯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그게 세월인가 보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정초의 그 새로운 각오는 지나는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창립 20주년의 성년을 맞아 협회 회관의 뜻깊은 준공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회원 각자의 소망이 결실을 본,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해였다. 그러나 그 기쁨 못지않게 우리에게 심각한 불황의 여파가 휘몰아친 씩씩한 해이기도 하였다. 날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성취하여 얻은 것보다 성취하기 위하여 잃은 것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진나 않은지?

× ×

해가 바뀔 때마다 새 수첩에 새롭게 주소록과 전화번호를 정리한다. 가까운 친구에서부터 고객과 업무관계의 상호협동업체, 기관, 선후배, 친척 등 나와 이 좁은 사회와의 연결체인 이 수첩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준 고마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그중에는 간혹 연락이 두절되어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새로운 친분으로 새롭게 기재되는 사람도 있고, 사소한 다툼으로 거리가 멀어진 사람, 그

리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 등등, 그동안의 생활상의 기록들이다.

나의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의 인과관계속에서 나는 얼마만큼이나 그사람들을 생각하며 지냈을까? 나는 내가 얻는것을 바랄뿐, 내가 그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도움을 주었을까?

× ×

지난해에도 건축사들이 200여명이나 새롭게 탄생하였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분들에게 우선 축하를 보내며, 같은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중에는 새로이 사무실을 개설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속하여 있던 사무실에 더욱더 열심히 협력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질과 소양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마음놓고 아름다운 건축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나 일하고 싶은 의욕에 차이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일하는 기쁨 대신에 치열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되어야 투자목적의 생기고 투자목적의 왕성해지면 따라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 당연한 귀결이다.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져 미처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남겨진 일들이 허다하다. 보다더 인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가 바라는 진정한 요구에 파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경기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높아져 가고, 제품의 질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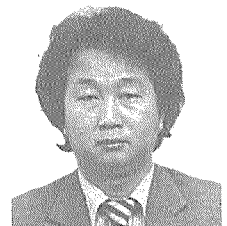
자 안간힘이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한마음이 이 어려운 숙제를 풀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무주택가구의 수가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확보 보다는 질적향상에 열을 올리고 싶은 심정은 그동안 성급하게 시행된 수많은 시민아파트나 불량주택지가 수년내 또다시 재개발의 수술을 들지 않아도 될만큼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이 이 도시를 채워 줌으로서 살기좋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심정에서이다.

우리는 중복되는 도로공사의 낭비에 염증이 났으며 낭비되는 우리의 세금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방관자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태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이다.

또한 건축 기능공의 양적 확보와 질적인 기술향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를 또한 이 도시가 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기술을 발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건축은 한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분야 맡은 바 자기 소명의식을 갖고 직분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정구은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